

# 고전소설의 환상적 수사와 미감

김문희\*

## || 차례 ||

1. 머리말
2. 경계적 인식의 수사와 환상성
3. 불일치적 시간의 수사와 환상성
4. 초현실적 공간의 수사와 환상성
5. 인식, 시간, 공간에 대한 환상적 수사와 미감: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수사적 표현을 유형화 해보고 그 미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에서는 인물과 서술자의 인식, 초현실적 시간과 공간묘사에서 환상성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서 고전소설의 환상적 수사를 유형화할 수 있다. 초현실적 사건을 경험하고 보고하는 인물과 서술자는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경계적(境界的) 인식을 주로 표현하는데 이때는 괴이와 의심의 인식적 수사, 의심과 해소의 인식적 수사, 기이와 경이의 인식적 수사가 주로 활용되어 텍스트의 환상성을 창출한다. 불일치적 시간의 수사는 상식적인 현실계의 시간관념과 전도된 시간법칙을 서술하는 것으로 현재 속의 미래의 예시적 시간의 수사,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의 수사, 과거와 현재의 비균질적 시간의 수사에 의해 텍스트의 환상적 감각이 창출된다. 초현실적 공간의 수사는 명암적 대조의 공간 수사, 탈속적 점층의 공간 수사, 미추적 과장의 공간 수사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공간 수사에 의해 텍스트의 환상성이 창출된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초현실적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서술에 의해서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화와 동화(同化)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자의 심미적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환상적 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따라 독자가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대상세계에 동화하기도 하면서 다른 환상적 미감이 경험되기도 한다.

주제어 : 고전소설, 환상성, 환상적 수사, 미감, 경계적 인식, 불일치적 시간, 초현실적 공간

## 1. 머리말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는 고전소설의 중요한 속성을 탐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환몽, 인귀교환, 이계여행, 도술, 변신, 예언과 같은 환상적 모티프를 읽는 독자의 심미적 거리감과 동화(同化)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자의 심미적 감각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환상적 모티프를 서사화하는 가운데 창출되는데 환상적 모티프는 일정한 언어적 표현의 패턴과 형태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현실과 대척점에 있는 초현실적 세계나 인물, 도술과 마술, 꿈과 같은 현실 법칙에서 벗어난 모티프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 환상성의 성격과 미감이 달라질 수 있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 작품의 환상성의 성격과 의미를 논의한 것<sup>1)</sup>도 있고, 고전소설의 전반적인 환상성의 성격을 논의한 경우<sup>2)</sup>

1)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pp. 15-73.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미학』,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pp. 149-175.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집, 2003, pp. 8-27.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 235-258.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 55-81. 임수현, 『남염부주지의 환상성 연구』, 『서강어문』15집, 서강어문학회, 1999, pp. 81-105. 신태수,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방향』, 『고소설연구』1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 133-164.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pp.

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전소설 전반에서 환상성을 창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수사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했다. 다만 김문희<sup>3)</sup>는 전기소설의 서술문체와 환상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전기소설의 환상성을 나타내는 서술 문체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폈다. 크게 초현실적 대상세계의 기이적 서술, 초현실적 대상세계의 유사 현실적 서술, 현실적 대상세계의 유사 기이적 서술의 차원에서 세부적인 서술 표지를 제시하며 전기소설의 환상성을 논의하였다. 김현주<sup>4)</sup>는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면서 고소설의 환상성과 그 담화적 특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환상적인 의미 자질의 시공 지표, 서술상황에서의 환상적인 담화 표지, 비유와 과장과 같은 미세한 언어표현을 통해 고소설의 환상성이 드러난다고 하고 이를 통해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환상적 모티프가 대거 나타나는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환상성을 창출하는 고전소설의 수사적 표현을 유형화 해보고 환상성의 미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고전소설에서 환상적 수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수사적 측면에서 고전소설의 환상의 미학을 더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7-76. 이정원, 『장화홍련전의 환상성』, 『고소설연구』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 99-135.

2)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현실성과 낭만성 문제』, 『민족문화사연구』10호, 민족문화사연구소, 창작과 비평사, 1997, p. 12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pp. 8-14. 강상순, 『고소설에서의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 31-44.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 5-29.

3) 김문희, 『전기소설의 서술 문체와 환상성』, 보고서, 2006, pp. 32-112.

4) 김현주,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 『고소설연구』2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pp. 481-501.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서술적 표현에서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과 초현실이 다르다는 인물과 서술자의 인식, 초현실계와 현실계에 다르게 작동하는 시간 관념, 현실과 다른 초현실적 공간 묘사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환상성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물과 서술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인식, 현실과 다른 시간 표현과 공간 표현에 포착하여 고전소설의 환상적 수사를 새롭게 유형화 해보고 그 미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본고의 대상 작품은 현실과 초현실적 세계의 넘나들이 빈번한 고전소설인 『금오신화』, 『기재기이』, 『구운몽』, 『운영전』, 『숙향전』, 『유충렬전』,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현몽쌍룡기』<sup>5)</sup>이다. 이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환상적 모티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 작품들이 15~18세기에 걸쳐 창작된 전기소설, 환몽소설, 애정소설, 초기가문소설, 장편가문소설이라는 각 유형의 대표성을 떨 수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환상성을 논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이다.

## 2. 경계적(境界的) 인식의 수사와 환상성

### 1) 괴이(怪異)와 의심(疑心)의 인식적 수사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초현실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괴이하다고 느끼거나 의심스러움을 느끼는 인물의 인식과 지각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5)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대상작품은 다음과 같다.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심경호 옮김, 홍익출판사, 2002), 『기재기이연구』(소재영 옮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구운몽』(김병국 교주·역,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운영전』(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숙향전』(김진영·차충환 교주, 민속원, 2001), 『유충렬전』(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창선감의록』(이래종 역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사씨남정기』(이래종 역주, 태학사, 1999), 『현몽쌍룡기』<sup>2</sup>(김문희 역주, 소명출판, 2010)

인물은 초현실적 사건이나 인물을 살펴보고 있지만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에서 괴이함을 느끼거나 의심스러운 눈길로 대상세계를 바라본다. 이것은 초현실계의 초입에서 아직까지 초현실계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인물의 경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은 『기재기이』의 『안병몽유록』의 안생이 느끼는 괴이함과 의심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 홀연한 생각에 선잠이 들었다. 처음에는 크기가 박쥐만한 호랑나비가 코 끝에서 훨훨 나는 것을 깨닫자, 선비는 괴이하여 나비의 뒤를 따르니 나비는 혹 가까이 혹 멀리하면서 마치 인도해 가듯이 했다. 몇 리쯤 가자 한 마을 입구에 이르렀는데, 복숭아·오얏꽃이 난만하게 피었고 그 아래에는 좁은 길이 있어 방황하다 돌아오려 하자, 따라오던 나비가 또한 보이지 않았다. 좁은 길 사이에서 나이 십삼, 사세된 청의동자(靑衣童子)를 만났는데, 손뼉을 치며 앞에서 웃으며 말하기를 “안공(安公)께서 오신다”고 하고, 인하여 달려 사라지니 그 걸음이 날 듯했다. 선비는 당초 그 동자와 서로 서로 알지 못했음을 곰곰히 생각하고, 자못 괴이하게 여겼다. 드디어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자, 집 한 채가 보였는데, 흰 담장을 두르고 붉은 용마루에 푸른 기와와 흰히 빛나는 산골짜기는 자못 인간의 제도가 아니었다.<sup>6)</sup>

『안병몽유록』의 주인공인 안생은 꿈속에서 초현실계인 ‘꽃왕국’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질감과 거리감을 느낀다. 이 이질감과 거리감은 ‘괴이함’으로 표현된다. 안생은 호랑나비의 인도에 의해 ‘꽃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초현실계의 초입에서 만나는 ‘호랑나비’를 보며 ‘괴이함(怪)’을 느낀다. 안생은 또한 ‘꽃왕국’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청의동자’를 보면서 또 한 차례 ‘괴이함(怪)’을 느끼게 된다. 안생이 느끼는 괴이함은 현실계의 존재가 초현실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낯섦을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경계에서 느

6) 소재영 옮김, 『안병몽유록』,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pp. 91-92.

끼는 인물의 인식이다. 인물이 초현실계인 ‘꽃왕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괴이함’은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이 ‘괴이함’은 독자의 독서과정에도 전이되어 초현실계에 진입하는 인물의 인식 상태를 독자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텍스트에서 환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사적 표현이 된다.

이러한 수사적 표현은 『숙향전』과 같은 신성소설에도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ㄴ) 김전 부처(夫妻) 망월루(望月樓)에 올라 달을 구경하더니, 문득 하늘에서 흰꽃 한가지 장씨 앞에 떨어지거늘, 자세히 보니 이화(梨花)도 아니요, 매화(梅花)도 아니로되 맑은 향내 진동하거늘, 장씨 크게 괴이하여 김전을 청하여 보일 제, 홀연 광풍(狂風)이 일어나 그 꽃이 산산이 흩어지는지라.<중략> 밤중이 되어 고운 계집아이 둘이 옥등(玉燈)에 불을 들고 들어와 김전에게 일러 왈 “이제 부인이 오시니 그대 바빠 나와 집안을 소쇄(掃灑)하라.”하고 장씨 방으로 들어오거늘, 김전이 어찌할 줄 모르고 밖에 나와 집 내외를 소쇄(掃灑)하더니 기이한 향내 진동하거늘, 김전이 크게 의심하여 가만히 창틈으로 엿보니 장씨 벌써 아기를 낳은지라. 그 계집이 향물에 아기를 씻겨 부인 곁에 누이고 밖으로 나가거늘, 김전이 가는 곳을 보려 하고 따라나가니 벌써 간데 없더라. 김전이 크게 괴이하여 바빠 방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기절하였거늘, 급히 깨우니 장씨 자다가 깨는 듯하더라.<sup>7)</sup>

(ㄴ)은 숙향의 탄생과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을 서술한 것이다. 사십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장씨와 김전에게 숙향의 탄생과 관련하여 두 번의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다. 기이한 향내가 나는 흰 꽃 한 가지가 하늘에서 장씨에게 떨어지자 장씨는 ‘크게 괴이해’한다. 그런 후에 장씨는 임신을 하게 되고 열 달이 지나 딸을 낳게 되는데, 장씨가 딸을 낳는 밤에도 선녀들이 찾아와 “이제 부인이 오시니 그대 바빠 나와 집안을 소쇄하라”고 말하자 남편인

7) 김진영·차충환 교주, 『숙향전』, 민속원, 2001, pp. 55-57.

김전 역시 ‘크게 의심하’는 반응을 보인다. 천상계의 월궁선녀였던 숙향의 탄생은 기이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를 바라보는 장씨와 김전 부부는 ‘괴이’와 ‘의심’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괴이’와 ‘의심’의 수사는 『숙향전』의 남성 주인공인 이선의 출생 장면과 초현실적 사건을 경험하는 인간의 인식을 표현할 때마다 반복된다. 이 ‘괴이’와 ‘의심’은 현실계의 인물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잠시 동안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숙향전』의 인물들은 ‘괴이’와 ‘의심’을 거쳐 그제서야 초현실적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지만 독자는 인물의 이러한 반응이 반복됨에 따라 『숙향전』에서 무수하게 펼쳐지는 초현실적 세계에 익숙하게 된다. 곧 인물이 대상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는 동안에 독자는 이미 『숙향전』의 ‘괴이’와 ‘의심’의 수사적 표현을 통해 초현실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 2) 의심과 해소의 인식적 수사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초현실적 사건이나 인물을 괴이함과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초현실적 사건이나 인물을 의심했다가 그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창출되기도 한다. 인물은 초현실적 사건과 인물의 진위를 의심하다가 그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초현실적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초현실계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예문은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이 귀신인 여인의 정체를 의심하다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을 발췌한 것이다.

(ㄱ) 시녀는 집에 갔다가 와서는 술자리를 베풀었다. 시간은 벌써 사경(四更)이었다. 차려 놓은 방석과 작은 상은 화려한 맛이 없고 담박하였다. 하지만

술에서 나는 향내는 정녕코 인간 세상의 맛이 아니었다. 양생은 의아하고 괴이하였다. 하지만 여인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는 맑고 고왔다. 얼굴과 몸가짐도 압전하였다. 틀림없이 귀한 집 처자가 몰래 담을 넘어 나와 노는 것이겠지, 양생은 이렇게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sup>8)</sup>

양생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 전에 가지는 술자리에서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한다. 양생은 술의 향내를 맡으면서 인간세상의 맛이 아님을 직감한다. 그러나 여인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얼굴과 몸가짐에 매혹되어 여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여인을 현실적 존재로 믿으려고 한다. 곧 양생의 인식은 ‘의아하고 괴이함(疑怪)’에서 ‘의심하지 않음(不之疑)’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만복사저포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심과 해소의 과정을 보여주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적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양생이 여인을 현실적 존재로 믿으면서 여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인과 사랑을 나누지만 독자는 인물의 ‘의심’-‘해소’의 인식과는 달리 대상세계가 초현실계임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양생이 느끼는 의심과 그 의심의 해소는 독자 층위에서 망설임<sup>9)</sup>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만복사저포

8) 심경호 옮김, 『만복사저포기』,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p. 63-64.

9) 토도로프는 순수한 환상문학은 텍스트에서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서 인물의 망설임이 계속되고 이것이 독자의 망설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토도로프의 견해는 주로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을 구명하는 일환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김성룡은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여주인공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망설임인데 독자는 여주인공이 귀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물인 양생이 여주인공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망설임을 느끼자 독자들 역시 망설임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재홍은 『만복사저포기』의 주체인 양생의 의혹과 대상의 감춤 사이에 양생의 머뭇거림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것은 인물이 사건을 자연적·경험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초자연적·초경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머뭇거림이라고 하였다. 윤경희도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의 형식과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여인에 대한 초점화자인 양생의 의문은 독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세계와 초현실적인 세계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고 여기서 환상성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pp. 48-49.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

기』의 환상성의 특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인물이 느끼는 ‘의심’과 ‘해소’의 과정은 인물이 바라보는 시각이 불완전하며 현실계와 초현실계를 구분 짓는 경계적 인식의 표현이 된다. 인물이 초현실계를 현실계로 알고 몰입해도 독자는 의심과 해소의 수사를 통해 대상세계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을 견지하며 살펴보게 된다. 앞에서 살핀 괴이와 의심의 인식적 수사가 인물이 느끼는 경계적 인식을 독자가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의심과 해소의 인식적 수사는 독자가 인물의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물과 다른 차원에서 독자가 대상세계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환상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은 『기재기이』의 『서재야회록』의 선비가 문방사우가 인간으로 변하는 괴변을 보고 느끼는 의심과 그 해소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ㄴ) 때는 밤이 이미 삼경이었고, 점차 사람의 자취도 없어졌다. 홀연히 서실 안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웃는 듯 말하는 듯 들렸다. 선비는 가슴이 고동하여 돌아서 황급히 숨을 죽이고 주의해 들으니 과연 사람이 서실에 있는 것 같았다. 선비는 도둑인가 의심하고, 가만히 신을 벗고 잤은 걸음으로 다가가 살폈다. 때는 달빛이 빈창으로 들어와 방안은 대낮과 같았다. 창틈으로 몰래 살펴보니, 네 사람이 둘러 앉았는데, 모습이 똑같지 않고 의관도 각각 달랐다. 그 한 사람은 중옷(緇衣)과 거무스름한 관(冠)에 중후하여 꾸밈이 적었고, 나이가 가장 많았다. 한 사람은 얼룩 옷에 모자를 벗고 상투를 드러내어 올렸는데, 기품이 매우 날카로웠다. 한 사람은 흰옷(白衣)에 윤건(綸巾)으로 용모와 거동이 옥설과 같이 매우 깨끗했다. 한 사람은 검은 옷에 검은 모자로 얼굴이 남색칠을 한 것 같은데, 매우 못 생기고 작달막했다. <중략> 선비는 처음 도둑인가 생각했으나, 이미 물건의 괴변임을 알고는 마음에 또한 두려움이 없이 그 하는 바를 자세히 보고자 하였다.<sup>10)</sup>

집의 전기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14집, 서울대 국문학과, 1989, pp. 132-140.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보고사, 1998, pp. 242-243.

『서재야회록』은 서실의 문방사우인 붓과 벼루, 종이, 먹이 사람으로 변하여 선비와 담론을 나누는 이야기이다. 처음에 선비는 서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의심을 느끼지만 붓과 벼루, 종이, 먹이 사람의 외형을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물건의 괴변”임을 깨닫고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게 된다. 선비가 서실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지만 문방사우가 의인화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선비는 곧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경계감을 없애고 문방사우와 본격적인 담론을 펼치고 초현실계에 몰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재야회록』을 읽는 독자 역시 인물과 비슷한 시각과 인식을 지니게 된다. 독자는 인물의 ‘의심’과 ‘해소’의 과정에 밀착하여 초현실계를 바라보며 초현실계에 대한 경계를 없애고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만복사저포기』의 인물이 경험하는 ‘의심’과 ‘해소’의 과정이 독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상세계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환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사적 표현이라면 『서재야회록』의 ‘의심’과 ‘해소’의 과정은 독자가 초현실계에 대해 인물과 유사한 인식을 가지면서 초현실계에 동화해가도록 유도한다. 곧 『서재야회록』의 ‘의심’과 ‘해소’의 수사적 표현은 인물이 초현실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몰입하는 것처럼 독자도 초현실계의 원리와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환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는 죽은 여인의 정체성의 비밀을 인물과 독자가 아는 것이 중요한 『만복사저포기』와 선비와 문방사우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한 『서재야회록』의 서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작품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환상성이 창출되는 것이다.

10) 소재영 옮김, 『서재야회록』,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pp. 108-112.

### 3) 기이와 경이의 인식적 수사

초현실적 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수사는 현실계와 다름을 강조하는 ‘비인세(非人世)’나 ‘비인간(非人間)’과 같은 표현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는 기이함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기이와 경이의 인식적 수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운영전』에서 유영이 느끼는 ‘비인세(非人世)’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ㄱ) 두 계집종이 명을 받들고 갔다가 잠시 후에 술과 안주를 가지고 되돌아 왔는데, 나는 새가 오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가벼웠다. 유리로 된 술단지에는 자하주가 가득히 담겨 있었으며, 진귀한 과일과 훌륭한 음식 등 모두가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sup>11)</sup>

『운영전』의 유영은 꿈속에서 죽은 원혼인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 술잔을 나누며 김진사와 운영의 과거사를 듣게 된다. 두 계집종이 운영의 명을 받아 차려오는 술은 “자하주”이며 안주는 “진귀한 과일”과 “훌륭한 음식”으로 인간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천상계의 것이다. 유영은 이것을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非人世所有)”이라고 판단한다. 곧 인물의 시선을 통해 언급되는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 (非人世所有)”이란 표현은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현실계의 존재가 목격하는 초현실계의 기이함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읽으면서 독자는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현실계의 것이 아니라 초현실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임을 알게 된다.

‘비인세(非人世)’나 ‘비인간(非人間)’과 같은 기이의 표현과 함께 인물이 초현실계의 사건을 바라보며 느끼는 놀라움도 독자가 대상세계가 초현실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11)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p. 99.

『남염부주지』의 박생이 염부주에 들어가 느끼는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다.

(ㄴ) 자리에 앉자, 왕은 시자(侍者)를 불러 차를 내오라고 시켰다. 박생이  
결눈으로 보니, 차는 구리를 녹인 것이고 과실은 쇠로 만든 알이다. 박생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하지만 달리 피할 길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시자가 그의 앞에 다과를 올렸을 때는 구릿  
물과 쇠알이 향그러운 차와 맛있는 과실로 변해 있었다. 물론 향기가 일어,  
온 전각에 배었다.<sup>12)</sup>

『남염부주지』의 박생은 염부주에 가서 현실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  
게 된다. 백옥 난간에 금으로 된 평상에 오르니 차는 “구리를 녹인 물”이  
고 과실은 “쇠로 만든 알”이기 때문에 박생은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다.  
박생이 느끼는 ‘놀라움(驚)’과 ‘두려움(懼)’은 대상세계가 현실계와 다르다  
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건을 대면하는 독자의 반응도 인물과 유  
사할 수 있다. 대상세계에 대한 인물의 반응은 초현실계를 거리화하는 표  
현이고 이것은 독자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다. 인물이 느끼는  
‘놀라움’은 초현실계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사건의 특이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인물은 그러한 초현실계의 특이성을 알려주는 보고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물이라는 보고자를 통해 서사 세계를 바라보는  
독자의 인식 또한 기이함과 놀라움을 유사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기  
이와 경이의 수사적 표현은 인물이 초현실계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며  
초현실계에 몰입하기 이전까지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2) 심경호 옮김, 『남염부주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 171.

### 3. 불일치적 시간 수사와 환상성

#### 1) 현재 속의 미래의 예시적(豫示的) 시간 수사

환상성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상상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를 바꾸고 시간의 불일치를 표현하여 환상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불일치적 시간 수사는 현재 속에 미래의 시간이 들어오는 예시적(豫示的) 시간 수사이다. 다음은 현재의 시간 속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예시되는 경우를 제시한 예문이다.

(ㄱ) 소사가 다시 사씨에게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란다. 그 편지는 본디 진품이 아니었지. 그러나 신부가 여전히 이곳에서 머문다면 실로 강포의 화를 만나게 될 것이야. 하물며 신부에게는 칠 년 동안의 액운이 이미 예정되어 있단다. 그러니 남쪽으로 오천 리 밖으로 나가 화를 피하도록 하거라. 염려하지 말고 힘써 멀리 떠나가거라” <중략> 지금부터 육 년이 지난 후 사월 보름 날 저녁에는 반드시 백빈주(白蘋洲) 하류에 배를 대고 있다가 고초 겪는 사람을 구하도록 하거라. 이곳은 구천 아래니 신부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빨리 돌아가거라.” 사씨는 하직을 고하고 목놓아 슬피 울었다. 그러자 유모는 ‘부인이 꿈에 가위에 눌렸는가 보다’ 생각하며 부인을 불러 잠을 깨웠다. 그것은 곧 하나의 꿈이었다.<sup>13)</sup>

위의 예문은 『사씨남정기』의 사씨의 꿈속에 유소사와 최씨 부인이 나타나 사씨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말하는 부분이다. 사씨는 교씨의 계교로 유씨 집안에서 쫓겨나 유씨 가문의 선영 아래에서 지내면서 고난에 임박하여 꿈을 꾸게 된다. 사씨의 꿈속에 시아버지인 유소사와 시어머니인 최부인이 나타나 사씨가 받은 두부인의 편지가 가짜이며 사씨의 칠 년 동안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육 년 후에

13) 이래종 역주,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pp. 86-87.

백빈주에서 고초를 겪는 사람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이것은 현재 속에 미래의 사건이 예시되는 것으로 고전소설에서는 주로 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 미래의 예시는 현실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됨으로써 『사씨남정기』 안에서 환상성을 창출하는 유형적 표현이 된다. 꿈속의 시아버지 유소사와 시어머니 최부인의 미래사 예시는 인물에게는 반신반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것이 곧바로 실현됨으로써 이 예시는 독자에게 초월적인 구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사의 예시는 『사씨남정기』 안에서 독자가 초현실계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고난에 처한 여성 인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사의 예시와 보고로 가능한데 이것은 독자 층위에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적인 사건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현재 속에 미래가 예시되는 시간 수사는 대상세계를 오랫동안 의심하거나 거리화하는 환상성이 아니라 초현실적 예시를 믿음으로써 일상과 관련된 개연성 있는 환상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재 속에 미래가 예시되는 경우는 『유충렬전』에도 나타난다.

(ㄴ) 이날 밤 삼경에 피곤하여 잠자리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노인이 붉은 부채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오늘밤 삼경에 큰 변란이 있을 것이다. 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화광(火光)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몸을 숨겼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끊어진 후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하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광 속에서 외로운 혼백이 되리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놀라 깨다르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었다. 충렬은 잠이 깊이 들어 있는데 과연 붉은 부채 한 자루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부인이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앓힌 채, 근심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한 줄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난데없는 불이 사방에서 일어났다.<sup>14)</sup>

14)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유충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p. 37.

정한답이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유충렬을 없애기 위해 유충렬의 집에 불을 놓으려고 하자 유충렬의 어머니 장부인이 꿈을 꾸게 된다. 한 노인이 장부인에게 붉은 부채를 주며 한밤중에 화재가 일어날 것임을 예시하고 부채로 불을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가라고 일러준다. 장부인이 꿈을 깨니 붉은 부채가 이불 위에 있고, 얼마 후 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현재의 시간 속에 미래의 사건과 일이 예시되는 것으로 현실 속에서 이 예시는 그대로 실현된다. 이것은 고전소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재 속에 미래의 예시적 시간 수사가 자주 사용된다. 꿈에서 깬 인물은 얼마간의 의심을 가지지만 이 미래사의 예시가 실현되자 독자는 인물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초월적 가호를 믿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미래의 시간을 소환하여 현재를 변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곧 현재 속의 미래의 예시적 시간 수사는 현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초현실계의 작용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됨을 보여준다. 현재 속의 미래의 예시적 시간 수사는 독자 층위에서 텍스트의 초현실적 작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여 독자가 초현실적 세계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 수사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의 수사는 인물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혼란시켜 인물이 현재에는 현실계의 존재이지만 과거에는 천상계의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는 시간의 불연속성과 단절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7) 그 선관이 소왓, “태율이 벌써 천상 일을 다 잊었도다.” 동자(童子)를 명하여 차를 드리라 하니, 동자 차를 권하거늘, 상서 받아먹으니 그제야 천상

태을성(太乙星)으로 작죄(作罪)하여 설중매와 부부가 되었던 일과, 좌중(座中)에 있는 선관이 다 한가지 놀던 벗인 줄 알고 눈물지어 왈, “내 죄 중하여 인간에 내려왔거니와, 그대네는 무사히 계시되, 능이선은 어디 갔으며 설중매는 어디 있나뇨?” 선관 왈, “능이선은 인간 김전이니 그대의 처부로 되었고, 설중매는 양왕의 딸이니 그대의 둘째 부인이 되리라.” 상서 탄식 왈, “소아(素娥)는 어찌 김전의 딸이 되고 설중매는 양왕의 딸 됨이 무슨 연고뇨?” 선관 왈, “능이선은 봉래산에 구경갔다가 상제(上帝)께 꿀 진상(進上) 늦은 죄로 인간에 귀양 갔으며 소아를 위하였고, 설중매는 소아를 원망하더니 전생죄로 후생(後生)의 부부가 되게 하였으니, 잠시 간장을 썩히다가 만나게 함이요, 또 설중매는 상제(上帝)께 득죄함이 아니라 저의 부모와 그대 다 인간에 내려 갔으며, 약수(弱水)에 자원하여 빠져 죽으니, 후생에 귀히 되게 하되, 하루라도 양왕의 딸이 되게 하니라.”<sup>15)</sup>

위의 예문은 『숙향전』의 이선이 황태후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떠난 구약 여행에서 선관을 만나 자신의 전생과 숙향과 매향의 관계를 알게 되는 부분이다. 이선은 선관이 준 차를 마시고 자신이 천상계의 태을성이란 선관이었으며 자신의 동료였던 능이선이 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계에서는 숙향의 아버지가 되었고 숙향이 천상계의 소아(素娥)였으며, 천상계의 설중매는 매향이 되어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 될 것이라는 인간계의 운명을 알게 된다. 과거에는 태을성, 능이선, 소아, 설중매라는 천상계의 존재였지만 현재에는 인간계에 내려와 이선, 김전, 숙향, 매향이라는 인간계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적강(謫降)화소를 가진 고전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불연속적인 시간관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물이 과거에 천상계의 존재였다는 사실은 천상계와 지상계는 순환하는 세계라는 것을 드러낸다.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 수사는 인물이 겪는 고난적 상황을 인과적으로 설명하여 서사 세계의

15) 김진영·차충환 교주, 『숙향전』, 민속원, 2001, pp. 363-365.

인과성과 인물의 비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독자도 천상계의 사건을 지상계의 사건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다음 예문은 장편가문소설인 『현몽쌍룡기』에서 나타나는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의 수사를 발췌한 것이다.

(ㄴ) 상제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진보도군이 천상계를 떠난 지 16일에 말이 이러하니 속세가 무서운 곳이로구나.” 상제가 금술잔에 선주(仙酒)을 부어 먹이시고 말하였다. “이것을 먹으면 알게 될 것이다. 짐이 오늘 진보도군을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략> 경의 전신은 춘추시대의 안자(顔子)이다. 어질고 재덕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펴지 못하고 수명이 박하여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을 슬퍼하지 않다가 일찍 죽었으나 후세 사람들이 아끼는 바이다. 특별히 진보도군을 봉한 것은 태허선관(太虛仙官)의 으뜸 벼슬이기 때문이다. 건곤(乾坤)을 차지하고 만물을 생기 있게 하니 소임이 중요하고 자리가 높은 데 두어 그 어진 덕을 가지고도 오래 사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갚으려고 하였다. 세월이 여러 번 바뀌고 역대 제왕이 이리저리 바뀌니 진보도군이 잠깐 인간 세상을 보고자 하여 나갔다. 그때 항아선녀와 낭아선녀가 진보도군에게는 전생의 연분이 중요하고 또 옥가락지 한 짝씩을 가지고 일시에 발원하였다. 그러나 진보도군이 전세에 천상에 있을 때 하나의 죄도 없었다. 항아선녀는 얼굴이 곱고도 행실이 높다고 하여 동료들 업신여기며 죄 없는 청학을 키우다가 청학을 손으로 죽였다. 그 청학이 원한을 품은 사람이 되어 오빠가 되어 원한을 갚게 하였으니 항아선녀는 곧 양옥설이다. 남을 더럽다고 업신여기던 죄와 청학을 죽인 것이 원한이 된 것이다.<sup>16)</sup>

위의 예문은 『현몽쌍룡기』 9권에 나오는 조성의 천상계 여행담의 한 부분이다. 조성은 대인군자로 광동 땅에 들어가 사악한 기운을 없애고 광동 땅을 평정하고 잠이 드는데 꿈속에서 천상계에 초대받는다. 조성은 천상계의 상제에게서 선주(仙酒)를 받아먹고는 자신의 전신이 ‘안자(顔子)’였으

16)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2, 소명출판, 2010, pp. 160-161.

며 천상계의 진보도군이었고 자신과 양씨, 윤씨의 관계를 알게 된다. 또한 현재의 아내인 양씨가 천상계의 항아선녀였으며 청학을 죽였기 때문에 그 청학이 현재는 오라비로 태어나 양씨를 괴롭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낭아 선녀는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현몽쌍룡기』에서 조성의 이계 여행담은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의 수사를 통해 조성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며 꽤 긴 분량으로 환상담이 펼쳐진다. 여기서는 조성의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단절과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양씨와 그 오라비인 양세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단절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실계에서 양씨가 오라비인 양세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면서도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비밀을 해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와 현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현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 관념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물이 초현실계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은 인물인 조성의 비범성과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의 수사는 독자에게 낯선 초현실계의 경험을 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계의 연장선상에서 초현실적 경험을 해석하도록 하는 유형적 패턴이 된다. 현실계의 서사논리를 위해 초현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독자는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오래 느끼지 않고 소재적 차원에서 초현실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 3) 과거와 현재의 비균질적 시간 수사

고전소설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시간적 수사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흐름이 동일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초현실계의 시간의 흐름은 현실계의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이 비균질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은 초현실계의 시간과 현실계의 시간의 착오를 나타낸 것이다.

(ㄱ) 양생은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거기서의 생활은 인간 세상과 다름없이 즐거웠다. 여인의 시녀는 아름다웠고, 그러면서도 교활하지 않았다. 그릇과 가구들은 깨끗하면서도 잔꾸밈이 없었다. 양생은 그것들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하지만 정이 깊이 들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이윽고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였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삼 년보다 적지 않습니다. 낭군께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셔야지요”<sup>17)</sup>

위의 예문은 『만복사저포기』의 죽은 여인이 양생과 사랑을 나누고 초현실계의 시간과 현실계의 시간이 다름을 각인시키는 말이다. 여인의 말은 초현실계의 시간의 흐름과 현실계의 시간의 흐름이 다름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양생과 여인이 사랑을 나눈 개령동에서의 ‘3일’은 인간 세계의 ‘3년’의 시간보다 적지 않다는 것은 초현실계의 시간이 현실계의 시간보다 훨씬 빨리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초현실계와 현실계는 각기 다른 시간적 법칙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현실계의 시간과 현실계의 시간의 비균질성은 두 세계의 본질적인 차이와 간격을 강화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간 법칙은 현실계로 돌아온 인물이 초현실계에서 겪는 사건을 낯설게 느끼도록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이것은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독자가 현실과 초현실계의 거리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17) 심경호 옮김, 『만복사저포기』,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p. 67-68.

(ㄴ) 이날 도인을 모셔 석실에서 자더니 하늘이 채 밝지 못하여서 도인이 생을 깨워 이르되, “길이 이미 트였고 과거를 명춘으로 물렸으니 대부인이 문을 의지하여 기다리나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인하여 노비를 차려 주거늘 생이 백배하여 도인에게 사례하고, 거문고와 통소를 수습하여 산에서 내려오며 돌아보니 도인의 집이 간 곳이 없더라. 생이 작일에 산에 들어올 제 버들꽃이 지지 아꼈더니 하루 사이에 물색이 변하여 바위 사이에 국화 만발하였거늘 생이 괴이히 여겨 사람을 만나 물으니 이미 팔월이 되었더라. 전에 자던 객점을 찾아오니 병화를 겪은 후에 인가가 소조하여 옛날과 다르고, 과거를 물어 알아보니 천자가 여러 도의 병마를 모아 다섯 달 만에 비로소 역적을 평정하고 명춘으로 퇴정하였더라.<sup>18)</sup>

위의 예문은 『구운몽』의 양소유가 난을 피하여 남전산에 들어가 신선을 만나 거문고와 통소를 연주하며 미래의 일을 듣고 다시 현실계를 돌아온 후에 초현실계에서 보낸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부분이다. 양소유가 신선계에서 보낸 하룻밤은 현실계에서 두 계절을 보낸 시간이 된다. 신선계에서의 하루의 시간은 현실계에서는 봄과 여름이 지나고 병화를 겪는 다섯 달의 시간의 흐름에 상응한다. 이러한 초현실계와 현실계의 시간의 비균질성은 초현실계와 현실계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인물이 현실계와 철저히 격리되어 초현실계에서 생활하였다는 특이함을 표현한 것이다. 초현실계의 시간의 흐름과 현실계의 시간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간에 대한 비균질적 표현은 인물뿐만 아니라 독자 층위에서도 현실계와 초현실계 거리와 차이를 인지하게 하여 텍스트의 환상적 감각을 창출하기도 한다.

18) 김병국 교주·역, 『구운몽』,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p. 67.

#### 4. 초현실적 공간의 수사와 환상성

##### 1) 명암적(明暗的) 대조의 공간 수사

고전소설에서는 현실계의 인간이 초현실계로 공간 이동을 할 때 어둠과 밝음의 대조적 수사를 자주 활용한다. 어둠을 나타내는 어휘는 인물이 초현실계로 진입할 때 느끼는 공포와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밝음을 나타내는 어휘는 인물이 초현실계에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적 공간에 대한 이러한 명암적 대조의 수사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환상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공간묘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 ① 유생은 부끄럽고 무료해서 이내 후원으로 들어갔다.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 ② 유생은 서쪽 동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샘과 물이 조용하고 깊숙한 곳에 이르자, 온갖 풀들이 뻗뻗하게 우거져 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었으며, 땅에는 꽃이 가득히 떨어져 있었으나 사람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풍이 한번 불자 향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유생은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소동파의 ‘내가 조원각에 오르니 봄은 반쯤 지났는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네’라는 시구를 읊조렸다. 곧이어 허리춤에 차고 왔던 술병을 꺼려 다 마시고, 술에 취해서 돌에 머리를 기댄 채 바위의 가장자리에 누웠다. 잠시 후 유생은 술이 깨자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닐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돌아가고 없는데 산에서는 달이 이미 떠올랐으며, 연기는 버들 눈썹에 아롱지고 바람은 꽃뺨에 살랑거렸다. 이때 한줄기 가느다란 말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다. 유생이 이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말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한 소년이 절세의 미인과 함께 싸리나무 가지에 마주 앉아 있다가 유생이 오는 것을 보고 흔쾌히 일어나 맞이하였다.<sup>19)</sup>

19)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pp. 97-98.

위의 예문은 『운영전』의 불우한 청년 유영이 꿈속에서 죽은 원혼인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는 입몽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꿈속에서 유영은 수성궁 후원(①)과 수성궁 후원의 서쪽 동산(②)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데 ①의 수성궁 후원은 현실계와 초현실계의 전이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②의 수성궁 후원의 서쪽 동산은 초현실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양상은 어둠과 밝음이라는 각기 다른 대조적 표현들로 나타난다.

①의 수성궁 후원은 현실과 초현실의 전이적 공간으로 주로 “무너진 담”, “깨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 “무너진 돌계단”, “잡초가 무성함”과 같은 퇴락함과 황폐함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공간의 윤택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어둠과 윤택성을 나타내는 어휘는 인물의 의식이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독자의 의식 또한 인물과 유사한 상태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비해 ②의 수성궁 서쪽 동산은 초현실적 공간으로 이곳은 밝음을 나타내는 문장들로 표현된다. “온갖 풀들이 뻗뻗하게 우거져 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다”, “땅에는 온통 꽃이 떨어지다”, “미풍이 한번 불자 향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다”, “산에 달이 이미 뜨다”, “연기가 눈썹에 아롱지다”, “바람이 꽃땀에 살랑거리다”와 같은 어구는 밝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영이 초현실계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유영은 현실과 초현실계의 전이적 공간에서 지냈던 윤택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의식으로 운영과 김진사를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명암적 대조의 공간 수사는 경계적 공간에서 초현실적 공간으로, 인물의 윤택적 의식에서 개방적 의식으로, 의식의 축소와 긴장에서 의식의 팽창과 이완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독자는 인물의 시선을 통해 대상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물이 경험하는 의식의 축소와 긴장에서 의식의 팽창과 이완의 과정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전이적 공간에서 위치한 인물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둠

과 윤패성을 환기하는 어휘들로 공간이 묘사되고 초현실적 공간에서 인물의 긴장감과 공포감이 이완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밝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는 어휘들로 공간이 묘사되는 것이다. 명암적 대조의 공간 수사는 현실계에서 초현실계로 진입하는 인물의 심리적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기소설인 『기재기이』의 『하생기우전』과 『최생우진기』의 공간 이동에서도 유형적으로 나타난다<sup>20)</sup>. 독자는 초현실적 공간이동에서 나타나는 명암적 대조의 공간 수사를 읽으면서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과 이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텍스트의 환상적 감각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 2) 탈속적 점층의 공간 수사

초현실계를 인간계와 구별되는 탈속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환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의 초현실계는 인간계와 격리되어 있고 탈속과 성스러움의 자질을 함의한 곳이다. 이 공간에서 인물은 고난을 이겨내거나 무공과 재주를 닦아 현실계로 나가는 준비를 하기도 한다.

(ㄱ) 10여 리쯤을 앞으로 나아가니 바위 골짜기가 점점 깊어지며 산봉우리는 더욱 수려해졌고, 자옥한 구름과 맑은 이내가 잠깐 일어났다 다시 사라지곤 했다. 신령스런 기운이 자옥하게 피어오르고, 태고의 향취는 사방에 넘쳐흘렀다. 한림은 발길이 닿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때 문득 좌우에 붉은 절벽이 나타나고 이내 드넓은 골짜기가 펼쳐지더니, 그 안에서는 신령한 새와 기이한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다. 한림은 길을 잃은 줄 알고 근심에 쌓여 사방을 둘러보았다.<sup>21)</sup>

20) 김문희, 『전기소설의 서술문체와 환상성』, 보고사, 2005, pp. 45-51.

21)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pp. 287-288.

위의 예문은 『창선감의록』의 화진이 악인의 모함을 받아 유배간 축 땅에서 신선계의 인물인 은진인을 만나기 위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화진이 들어가는 산골짜기는 현실계의 내부로 깊이 침잠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현실계 속에 깊이 숨어있는 초현실계인 것처럼 묘사된다. “바위 골짜기가 점점 깊어지며 산봉우리는 더욱 수려해지다”, “자욱한 구름과 맑은 이내가 잠깐 일어났다 다시 사라지다”, “신령스런 기운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다”, “태고의 향취는 사방에 넘쳐흐르다”, “신령한 새와 기이한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화진이 들어가는 공간이 초현실계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러한 표현은 탈속과 신성성의 자질을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서 독자는 화진이 들어온 공간이 탈속적이며 신성한 초현실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공간에서 화진이 병법을 연마하여 입공할 것이란 예상도 할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병법과 무공을 연마하는 곳을 초현실적 탈속의 공간으로 설정한 이유는 주인공이 신이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힘과 실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탈속적 점층의 공간 수사는 『유충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ㄴ) 푸른 산을 바라보고 종일토록 가다가 한 곳에 다다르니, 앞에 큰 산이 있었다.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가운데 오색구름이 구의봉에 떠 있고, 갖가지의 화초(花草)가 활짝 피어 있었다. 신령한 산이라 생각하고 찾아 들어가니, 경개(景概)가 매우 뛰어나고 풍경이 산뜻하였다. 산길 육칠 리에 들리는 것은 잔잔한 물소리요, 보이는 것은 울창한 청산뿐이었다.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울창한 숲속을 기어 올라가니, 수양버들의 수많은 가지들이 봄바람을 못 이기어 동구(洞口)에 늘어져서 흔들거리며,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는 우거진 가지에 온갖 풀들의 춘정(春情)을 다투었다. 층층히 이루어진 화계상(花溪上)에는 앵무와 공작이 넘노는데, 푸른 하늘에 걸린 폭

포가 층암절벽을 치는 소리는 한산사(寒山寺)의 쇠북소리가 객선(客船)에 이르는 듯, 하늘 높이 솟은 암석이 푸른 소나무에 싸여 있는 모습은 산수화를 그린 여덟 칸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였다. 경쇠소리가 들리기에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가니, 오색 구름 속에 휘황하게 단청을 한 높은 누각과 큰 집들이 즐비하였다. 일주문(一柱門)을 바라보니 황금대자(黃金大字)로 ‘서해 광덕산 백룡사’라 뚜렷이 붙어 있었다.<sup>22)</sup>

정한담의 계교에 의해 유충렬의 장인인 강희주가 유배가게 되자 유충렬은 그동안 의탁해있던 처가 식구와 헤어져 산 속을 헤매다 ‘광덕산 백룡사’에 들어가게 된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유충렬이 찾아가는 ‘광덕산 백룡사’는 선경(仙境)이라고 할 수 있다. ‘백룡사’의 공간 그 자체보다 ‘백룡사’가 위치해 있는 ‘광덕산’ 전체가 초현실적 신선계라는 사실은 ‘광덕산’을 묘사하고 있는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오색구름이 구의봉에 떠 있다”, “갯가지 화초가 활짝 피어 있다”, “신령한 산이라 생각하다”, “들리는 것은 잔잔한 물소리”, “보이는 것은 수많은 가지들”, “푸른 대나무와 소나무”, “화계상(花溪上)에는 앵무와 공작이 넘놀다”, “폭포가 층암절벽을 치는 소리”, “하늘 높이 솟은 암석이 푸른 소나무에 싸여 있는 모습” 등은 초현실적 신선계의 공간적 자질을 점층적으로 표현하여 현실계와의 단절과 탈속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처럼 초현실적 신선계는 현실계와 격리된 탈속과 성스러운 공간의 자질을 부여받으며 묘사된다. 초현실적 신선계가 탈속적 공간으로 의미화되는 것은 주인공이 정신과 육체를 쉴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병서를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 현실계에 복귀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곧 주인공은 초현실적 신선계의 공간에서 과거의 연약한 존재에서 미래의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들어가는

22)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유충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pp. 79-81.

공간이 현실계와 격리된 탈속과 성스러운 공간의 자질로 의미화되는 것은 그곳이 통과의례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계를 우위에 두고 초현실계의 이미지를 서사 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현실계의 차원에서 초현실계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 3) 미추적(美醜的) 과장의 공간 수사

초현실계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사는 초현실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거나 추함을 과장하는 것이다. 미추(美醜)의 자질을 과장적으로 표현하여 초현실계를 표현함으로써 일상적인 현실계의 모습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묘사를 읽는 독자는 실감나게 초현실계를 바라보는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7) 산과 바위와 암벽과 벼랑이라고는 한생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바둑판같이 넓고 평평한 세계가 수십리쯤 되었다. 옥처럼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그 안에 줄지어 심어져 있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으며, 둘레에는 금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행랑과 뜨락에는 모두 푸른 유리 벽돌이 깔려 있어, 광채와 그림자가 서로 어우러졌다. 용왕은 두 사람을 시켜 한생을 인도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한생이 그들을 따라 한 누대에 이르렀는데, 이름하여 조원지루(朝元之樓)였다. 이 누각은 순전히 파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진주구슬로 장식되어 있으며, 황금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어우러져 있었다. 한생이 그 누각에 오르자 마치 허공에 오른 것 같았다. 그것은 천층이나 되었다.<sup>23)</sup>

위의 예문은 『용궁부연록』의 한생이 용궁에서 오색구름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다. 한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용궁 세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사물을 나열하고 과장해 놓은 것처럼 경이롭게 표현

23) 심경호 옮김, 『용궁부연록』,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p. 219-220.

되어 있다. 용궁의 경관은 “옥처럼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그 안에 심어져 있다”,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다”, “둘레에는 금담장이 둘러져 있다”, “행랑과 뜨락에는 푸른 유리 벽돌이 깔려 있다”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물을 나열하고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생과 용왕이 앉는 누각은, “순전히 화려로 이루어져 있다”, “진주구슬로 장식되어 있다”, “황금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어우러져 있다”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대상세계를 최대한 심미화하여 현실계와 다른 경이로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현실적 공간을 심미적으로 과장하는 수사는 『안방몽유록』의 꽃 왕국이나 『최생우진기』의 신선계의 공간을 묘사하는 것에서도 유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초현실적 공간의 기괴함을 드러내기 위해 대상세계의 기괴함과 추함을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지옥 세계를 비유하고 있는 『남염부주지』의 공간묘사가 바로 그것이다.

(ㄴ) 그 땅에는 본디 초목이 없고 모래와 자갈도 없었으며,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였다. 낮에는 거센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린다. 밤이 들면 차가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서 사람의 살갓과 뼈를 쭈셔대니, 몸에 부딪히는 장애를 견딜 수 없었다. 또한 쇠로 된 벼랑이 성처럼 서서, 바닷가를 따라 연하여 있었다. 거기에는 철문이 오직 하나만 있어, 굉장하였다. 그 문에는 자물쇠가 아주 굳게 잠겨 있었다. 문지기는 주둥이와 송곳니가 튀어나오고 험상궂고 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 문지기는 창과 쇠몽둥이를 쥐고, 바깥에서 오는 자들을 막고 있었다. 성 가운데 사는 백성들은 쇠로 집을 지어 살았다. 그래서 낮에는 불에 데어 문드러지고 밤에는 얼어붙어 갈라지고는 하였다. 그들은 그저 아침과 저녁에만 구물구물 움직여서는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그다지 괴로워하지도 않는 듯 했다.<sup>24)</sup>

24) 심경호 옮김, 『남염부주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p. 167-168.

현실계의 선비 박생은 꿈에 바닷 속의 염부주라는 공간에 들어간다. 염부주의 모습은 용궁이나 꽃 왕국처럼 별천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옥과 흡사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 땅에는 본디 초목이 없고 모래와 자갈도 없다”,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구리가 아니면 쇠다”, “낮에는 거센 불길이 하늘까지 뻗쳐 땅덩이가 녹아내리다”, “밤이 들면 차가운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서 사람의 살갓과 뼈를 쑤셔대다”, “쇠로 된 벼랑이 성처럼 서서, 바닷가를 따라 연하여 있다”, “문지기는 주둥이와 송곳니가 튀어나오고 험상궂고 사납기 짝이 없다”, “낮에는 불에 데어 문드러지다”, “밤에는 얼어붙어 갈라지고는 하다”라는 표현은 염부주의 기괴하고 추한 이미지를 과장적으로 나타내어 염부주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적 특징을 드러내게 된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에서 초현실계는 주로 심미적 표현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별천지로 묘사되는 데 비해 『남염부주지』의 초현실적 공간은 기괴하고 음울하고 추한 모습을 극대화하는 공간적 표현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염부주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명부(冥府)의 세계이기 때문에 추함과 기괴함을 나타내는 공간적 표현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추적 과장의 공간 수사는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별천지나 지옥의 공간을 재현하기 위한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추적 과장의 수사는 초현실적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며 인물이 초현실계 대해 새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인물과 유사하게 별천지 같은 공간을 목도하며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고 대상세계에 대해 점차로 동화되는 과정 속에서 텍스트의 환상성을 느낄 수 있다.

## 5. 인식, 시간, 공간에 대한 환상적 수사와 미감

### : 결론을 대신하여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서술에 의해서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화와 동화(同化)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독자가 느끼는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화와 동화는 독자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느끼는 심미적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화는 현실과 다른 대조적 체험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초현실적 세계에 대한 동화는 현실과 유사하다고 느끼거나 초현실계를 수용하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의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경험하는 거리화와 동화의 과정을 통해 환상의 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환상적 수사는 크게 인물과 서술자의 인식의 측면, 시간에 대한 표현, 공간에 대한 묘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각각 세 가지 세부적인 환상적 수사를 유형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물과 서술자의 경계적 인식, 불일치적 시간의 수사, 초현실적 공간의 수사는 독자의 심미적 거리화와 동화의 감정을 조율하면서 환상적 감각을 창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세계에 대한 일정한 심미적 거리화를 오래 유지하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시간동안의 심미적 거리화만을 유지하고 곧바로 동화의 과정을 유도하며 환상성을 느끼도록 한다.

경계적(境界的) 인식의 수사는 인물과 서술자의 인식을 재현함으로써 환상적 감각을 환기한다. 괴이와 의심, 의심과 해소, 기이와 경이의 인식이 그것인데 이것은 인물과 서술자가 초현실적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텍스트 내적 반응이다. 인물과 서술자의 괴이와 의심, 의심과 해소, 기이와 경이의 인식은 초현실계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초현실계로 진입

하는 초입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물과 서술자의 인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서사가 진행될수록 인물과 서술자가 이러한 수사적 표현을 동원해도 독자는 초현실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물과 서술자가 느끼는 거리감에 동조하기보다는 점차로 초현실계에 동화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때문에 고전소설은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토도로프식의 순수한 환상성<sup>25)</sup>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초현실적 대상세계에 점차로 동화되는 환상성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경계적 인식의 수사는 독자가 현실과 초현실계 사이의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도록 유도하지만 서사의 흐름 속에서 이 거리감은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 독자가 초현실계의 법칙과 규약을 이해함으로써 초현실계에 동화되기 때문에 경계적 인식의 수사는 초현실계의 초입에서 일정한 거리감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불일치적 시간의 수사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현실계의 시간관념과 전도된 시간법칙을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환상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초현실계의 과거의 시간과 현실계의 현재의 시간이 비균질적이라는 시간 표현은 현실과 초현실계 사이에서 독자가 일정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기하지만 현재 속에 미래의 예시적 시간을 표현하거나 과거와 현재의 불연속적 시간관념을 표현하는 수사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미적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이것은 독자가 초현실계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보다는 초현실적 경험을 현실 속에서 해석하여 현실적 시각에서 초현실계를 해

25) 토도로프는 순수한 환상문학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인물의 망설임이 계속 되어 독자의 망설임과 애매함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토도로프가 논의하고 있는 순수한 환상문학으로 보기 어렵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독자의 의식이 현실과 초현실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에서 출발하여 서사가 진행되면 초현실계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조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를 한 송효섭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송효섭, 「이조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23집, 한국언어문학회, 1984, pp. 373-374.

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현실적 사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술되고 여기서 독자는 자동화되고 장식적인 환상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초현실적 공간의 수사 중 명암적 대조의 공간 수사와 미추적 과장의 공간 수사는 초현실계로 진입하는 인물의 시각을 독자가 그대로 느끼도록 하여 인물이 느끼는 낯센과 새로움을 독자도 느끼게 하는 심미적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서 현실과 초현실계 사이에서 독자가 심미적 거리를 가지게 되고 이 거리감은 텍스트에서 일정 정도 유지되기에 이른다. 인물의 시각에 밀착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독자에게도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이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의 환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탈속적 점층의 공간 수사는 현실계를 우위에 두고 초현실계의 이미지를 서사 속에 반영하는 것으로 고전소설에서 전형적인 초현실계의 공간적 묘사로 자리잡게 된다. 인물과 서술자는 초현실계에 진입하는 사건을 새로운 경험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더 이상 독자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적인 현실을 충족된 현실로 탈바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독자에게는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감이 전이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자는 인물과 서술자의 태도와는 달리 편안한 느낌으로 인물이 초현실계에 진입하는 상황을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수사적 표현은 일정한 시각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다만 그 수사적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환상적 감각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심경호 옮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2, pp. 59-224.  
 소재영 옮김,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pp. 91-122.  
 이상구 역주, 『운영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pp. 96-159  
 김병국 교주·역, 『구운몽』,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9, pp. 5-554  
 이래중 역주, 『창선감의록』,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3, pp. 17-455.  
 이래중 역주,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pp. 13-172.  
 김진영·차충환 교주, 『숙향전』, 민속원, 2001, pp. 48-387.  
 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유충렬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pp.12-211.  
 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2, 소명출판, 2010, pp. 12-323.

### 2. 논문

- 강상순, 「고소설에서의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 31-44.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1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 5-29.  
 김문희,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47집, 한민족 어문학회, 2005, pp. 57-76.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 5-27.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미학」,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pp. 149~175.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pp. 15-73.  
 김현주, 「고소설의 환상담론과 도가담론의 상관관계」, 『고소설연구』2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pp. 481-501.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25집, 성심어문학회, 2003, pp. 8-14.  
 송효섭, 「이조소설의 환상성에 대한 장르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23집, 한국언어문학회, 1984, pp. 357-374.

- 신재홍, 「초기 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14집, 서울대 국문학과, 1989, pp. 132-140.
- 신태수, 「기재기이의 환상성과 교환 가능성의 수용방향」, 『고소설연구』1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pp. 133-164.
- 윤경희,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한국고전연구』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pp. 235-258.
- 이정원, 「장화홍련전의 환상성」, 『고소설연구』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 99-135.
- 임수현, 「남염부주지의 환상성 연구」, 『서강어문』15집, 서강어문학회, 1999, pp. 81-105.
-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현실성과 낭만성 문제」, 『민족문학사연구』10호, 민족문학사연구소, 창작과 비평사, 1997, p. 125.
- 정환국,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화연구』3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pp. 76-99.
- 조혜란, 「민중적 환상성의 한 유형-일사본 전우치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 55-81.

### 3. 단행본

- 김문희, 『전기소설의 서술 문체와 환상성』, 보고사, 2006, pp. 32-112.

**Abstract****The Fantastic Rhetoric and Esthetic Sense of Classic Novels**

Kim, Moon-Hee

This study is designed to categorize rhetorics that generate the fantastic of classic novels, and to discuss the esthetic sense of the rhetorics. Those rhetorics may be divided according to cognition of the protagonist and the narrator, and description of surreal time and space. Narrators who undergo surreal experience shows liminal cognition. This creates the fantastic of the text through cognitive rhetorics about bizarreness and suspicion, suspicion and resolution, and bizarreness and marvelousness. The fantastic in the classic novels are sometimes generated by changing the logic of time order, which, in turn, brings about a new law of time that is different from the time concept in real life. Outstanding are in such cases that future events are shown in the present, the past and the present are expressed in a discontinued manner, or the time flows of the past and present are inconsistent. With regard to the surreal description of space, prominent rhetorics are antithesis that expresses space in darkness and brightness; auxesis that gradually increases the surrealistic character of the space; and hyperbolism that intensifies the beauty or ugliness of space. The fantastic of classic novels are esthetic senses that occur when readers identify with or feel distance from the surreal world. Readers sometime feel further distant according to in what context the fantastic rhetorics are introduced. Through the rhetorics, readers identify with the object world while experiencing different esthetic senses.

Key-words : Classic novel, the fantastic, fantastic rhetoric, esthetic sense,  
liminal cognition, time inconsistency, surreal space

김문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소 : (150-103)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9번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동 201호

전화번호 : 02-705-8229, 010-4596-4388

전자우편 : kimmuni21@hanmail.net

|                                                                              |
|------------------------------------------------------------------------------|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 투고되어<br>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br>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 |
|------------------------------------------------------------------------------|